

주목! 이사람



이흥목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16일 오후 3시 나주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농업박람회 축산관 업무협약에 참석한다.



박태선 농협광주지역본부장은 16일 오전 7시 30분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리는 금요조찬회에 참석한다.

동남아 시장개척단 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장범)는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광주광역시 동남아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의 참가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의 광주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이며,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베트남 호찌민 등 3개 지역에 선정기업을 파견할 계획이다.

품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현지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사전 시장성 검토 및 광주광역시와 중진공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참가기업은 바이어 발굴, 단체 수출상담 주선, 봉역배치 및 왕복항공료(50~70%)를 지원받는다. 중진공 전용호 수출지원장은 "금번 시계단은 아세안회원국 성장잠재력, 안정성, 주변 과급성이 높은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수출역량을 갖춘 지역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아울러 시계단 참가기업은 중진공의 다양한 수출지원사업, 정책자금, 인력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우위니아 '뉴트리볼렛' 출시 파워 고속 블렌딩 가능 주서기

대우위니아(대표 박성관)는 성능이 강화된 모터를 탑재한 고속 주서기 '뉴트리볼렛(NutriBullet)'을 1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모터 출력을 1천W와 1천200W로 업그레이드해 한층 강력해진 파워로 고속 블렌딩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과일·채소를 갈아 주스를 만들면서도 영양소 손실은 줄일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심플한 디자인과 메탈 소재를 사용한 몸체, 총알 형태의 외관 등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다. 색상은 실버와 네이비 등 2가지다.

신제품은 뉴트리볼렛 3개 모델(모델명 NB1000(KR), NB1000P(KR), NB1200(KR))과 미니 블렌더 '메지볼렛' 1개 모델(NB200(KR))로 구성돼 있다. 출하가는 모델에 따라 5만9,000~23만5,000원이다.

1분 뒤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 식품이 잘 섞이도록 회전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다.

홀리데이인 호텔 예약고객 할인 주중 10만원·주말 11만원 판매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은 다음달 8일까지 예약 고객에 한해 슈퍼리더&디럭스 객실을 정상이 대비 70% 이상 할인된 주중 10만원, 주말 11만원(2인 기준, 세금봉사료 불포함, 취소환불 불가)에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투숙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일(日) 6실 한정수량이다.

호텔 투숙 시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은 ☎062-610-7000이나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일본 홋카이도 태양광발전소.

홋카이도 태양광발전소 시운전

한전, 첫 해외 ESS 융복합형 태양광발전소

내달 5일 가동...25년간 3,174억 수입 전망

한국전력은 15일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시에서 28MW급 태양광발전소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전이 최초로 해외에 건설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융복합형 태양광발전소로서, 28MW의 태양광 발전과 13.7MWh의 ESS 설비가 결합됐다. 사업 부지는 신치토세 국제공항 인근으로, 약 33만평 규모에 12만3,480장의 태양광 모듈과 13.7MWh의 ESS 설비가 설치됐다.

발전소는 향후 20일 간 시운전을 거쳐 내달 5일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13억엔(약 1,130억원)으로 한전이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0일에 공사에 착공해 이날 시운전을 하게 됐다. 최종 준공은 향후 3개월 간 발전소 시스템 종합효율 시험과 정부기관의 발전소 종합준공 승인서 취득 등을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한전은 준공 이후 25년 간 발전소를 운영하며 홋카이도 전력회사에 317억엔(약 3,174억원) 상당의 전력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에 LS전선을 비롯한 13개 국내 기업의 기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약 505억원의 수출 효과도 창출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 조련의 사장은 14일 발전소를 방문해 "치토세 사업은 한전 최초의 해외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프로젝트"라며 "한전은 이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국내 기업들과 해외 신에너지 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금타 노동자들 청와대 앞 1인 시위 돌입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매각 막아달라"

"해외 부실 매각' 공정위 조사권 발동해야"

중국 국영기업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인수가 유력해지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졸속매각' 중단을 요구하며 저지 부선에 나섰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매각'을 막아달라며 전담부처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채권단의 갈등으로 금호타이어 졸속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사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금호타이어가 위

크아웃에 돌입했지만 임금삭감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3,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해 정상화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감이 컸었다"면서 "하지만 경영진의 해외 부실투자 영업환경 악화로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해외 자본에 매각함으로써 부실대출과 경영 정상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채권을 인수한 중국 자본 '더블스타'는 경영능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본구조가 취약해 '떡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위기가 깊어지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후보자 시절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보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할 것을 언급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설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위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of 고통을 견뎌내면서 삶의 전부인 금호타이어를 지켜왔지만, 현재 노동자들은 부실 매각 추진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졸속 매각 중단과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날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성인 58%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

가족과 저녁식사 일주일 평균 2.7회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직장인과 대학생 2,2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하루 평균 몇 끼를 먹느냐'는 질문에 '두 끼'라는 응답이 전체의 58.8%로 가장 많았다. 세 끼라고 밝힌 응답자는 30.1%였고, 한 끼라는 답도 9.1%에 달했다. 이 밖에 네 끼 이상이 1.0%, 한 끼도 먹지 않는다는 답은

0.9%였다. 이들 응답자가 식사를 사서 할 경우 하루 평균 식비는 8,3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녁식사에 대해서는 전체의 67.8%가 '거의 챙겨 먹는다'고 밝혀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3~4회(18.1%)가 그 뒤를 이었다. 거의 먹지 않는다(8.6%)와 일주일에 1~2회(5.5%)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일주일 중에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는 2회(20.1%), 3회(17.0%), 1회

(16.2%)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다. 특히 한 끼도 가족과 먹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15.5%에 달해 매일 같이 먹는다는 응답(10.4%)보다 더 많았다. 응답자들의 일주일 평균 가족 저녁식사 횟수는 2.7회로 집계됐다.

'가족과 저녁식사를 자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가족과 저녁을 같이 먹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과제가 너무 많아서'(31.9%), '가족과 떨어져 있어서'(29.1%), '각자 저녁식사를 해결하는 분위기라서'(24.4%), '회사·학교가 너무 멀어서'(19.4%) 등으로 나타났다. /연남뉴스

신보, 분사창업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삼성전자와 분사창업 기업 지원 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혁신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사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상품인 '스핀오프 Start-up 보증'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핀오프 Start-up 보증'은 대·중견 기업의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하거나 국공립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본인 참여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업력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신보는 사내벤처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삼성전자의 C-Lab을 통해 분사한 25개 기업 중 5개 기업을 신보 '퍼스트뱅크기업'으로 선정하고 제품 양산자금을 지원해 왔다.

모기업에서의 경험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업성을 검증받은 분사창업 기업들은 창업 성공률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번 보증상품은 사내벤처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분사 창업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증금액 3억원까지 매출액 한도검토를 생

략하고, '퍼스트뱅크기업'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보증 및 투자를 합쳐 최대 60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율(0.7%)과 보증비용(최대 100%)도 우대한다.

이외에도 IPO, 해외진출,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 등 스페셜 기업 성장에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된 전국 8개 창업성장지원센터에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신보는 지난 14일 삼성전자와 '분사(Spin-off) 창업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삼성전자의 C-Lab을 통해 분사창업한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향후 사내벤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중견기업으로도 협약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네이버, 인터파크도 90년대 IT벤처 붐에 따라 사내 벤처로 출발한 기업"이라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분사창업 기업을 적극 발굴해 제2, 제3의 네이버, 인터파크로 성장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농협광주공관장 임직원 20여명이 최근 극심한 가뭄피해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담양군 봉산면의 한 멜론 농가에서 멜론 걷어내기, 수확, 선별 및 하우스 정비 등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출하농가 일손도와요"

농협광주공관장, 이달까지 농촌 돕기 기간 지정

농협광주공관장 임직원 20여명이 최근 극심한 가뭄피해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담양군 봉산면의 한 멜론 농가에서 멜론 걷어내기, 수확, 선별 및 하우스 정비 등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농촌일손돕기는 멜론 걷어내기, 수확, 선별 및 하우스 정비 등 농가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황애란 기자

김훈 사장은 "험되고 지쳐있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은 최근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와 일손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농촌을 돕기 위해 6월을 범농협 임직원 집중 일손돕기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전남문진원, SW테스트 전문 인력 양성

내달 5일~7일까지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소프트웨어테스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SW테스트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SW 테스트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개념과 지식·기술을 다루는 일반과정으로 운영된다.

또 SW테스트 개요,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등 이론 교육부터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전남지역 IT·SW개발자 및 관계자, 대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28

일까지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오정환 진흥원장은 "SW기업들도 직원 채용시 CSTS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등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SW개발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SW품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지난 2012년부터 SW테스트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3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황애란 기자



NH농협생명, 농촌순회 무료진료

해남군 문내면에서 농업인·독거노인 대상 서울대병원의료진 진료·장수사진 무료촬영

NH농협생명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함께 전남 해남 문내면에서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농촌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료진료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선진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 약 500여명에게 내과, 안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영

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총 8개 과목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대상자 연령당 평균 3개 과목을 진료받으며 '진료·검사·결과 안내·처방·건강안내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수진자들에게는 가정용 상비약제

트를 무료로 제공하며 우리농업자기존 동분부와 협력해 진료받은 노인들에게 장수사진 무료촬영 서비스도 진행한다.

김봉규 문내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은 험거운 농·작업으로 인해 몸이 상한다. 그렇지만 거리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선뜻 종합병원까지 가지 못해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무료진료를 통해 우리 농민들이 건강을 찾아 활기찬 문내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생명은 문내농협을 포함하여 올해 총 10회에 걸쳐 무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